대학생들의 보훈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ttitudes and Behaviors of University Students on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윤 병 섭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Abstract

Byung-Seob Yoon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lations between attitudes, behavioral intentions, and behaviors on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d to find policy implications. Specifically, this paper test the hypotheses on the relations between attitudes, consisted of cognitive component and affective component, and intentions and behaviors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Metropolitan regions of Korea.

This paper found both cognitive attitudes and affective attitude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 with behavioral intentions and actual behaviors on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Furthermore, behavioral intentions have positive influence on actual behaviors on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o enhance awareness of university students on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주제어: 국가보훈, 인지적 태도, 정의적 태도, 행동의도

Keywords: National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Cognitive attitudes, Affective attitudes, Behavioral intentions

Ⅰ. 서 론

국가보훈은 국가의 정신적 가치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였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에게 국가가 응분의 보상을 하여 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가보훈처, 2002a: 18). 국가보훈은 국가의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을 배양하고, 안보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고도의 상징적 국가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전신욱·신윤창, 2003: 81).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들의 보훈의식은 민족정기 선양과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의 계승·발전, 국가와 민족의 안위수호뿐만 아니라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인건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밑거름이 되는 가치들이다(서운석, 2011: 185).

보훈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훈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보훈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보훈행동으로 발현되어야 한다. 보훈의식 함양과 보훈행동 유인을 위해 무엇보다 각 개인들은 어떠한 심리적 과정과 주관을 통해 행동으로 이어지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훈 관련 연구들은 주로 보훈의식 수준진단과 이의 함양이나 보훈문화 확산 등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보훈 관련 태도와 행동의도, 그리고 보훈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훈 관련 태도인 인지적 태도와 정의적 태도가 보훈행동의도 및 보훈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그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서론에 이은 Ⅱ장에서는 보훈의 의의와 태도-행동이론을 고찰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Ⅲ장에서는 연구의 분석틀과 가설을 설정하고, 조사설계 내용에 대해 기술한다. Ⅳ장은 실증분석의 장으로 보훈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 그리고 보훈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Ⅴ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보훈 관련 태도와 행동의도, 그리고 보훈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규명은 물론 보훈의식 함양을 통한 보훈행동 실천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보훈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국가보훈의식과 문화는 국가안보 및 국민통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개념이다. 전

신욱·신윤창(2003: 81)은 보훈을 국가와 국민개인(또는 집단)과의 상호관계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국가행위로 간주하고, '고맙게 해준 데 대한 갚음'을 뜻하는 보수(報酬)의 보(報)와 '나라를 위해 세운 공로'를 뜻하는 공훈(功勳)의 훈(勳)을 결합하여 만든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강석승·김현기(2003: 64)는 국가보훈을 공동체의 존립과 안위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거나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물질적 보상을 부여하는 등의 개인적 생활보장은 물론 그 정신의 계승발전을 통하여 전체구성원의 공동체 정신을 형성해 가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경환(2009: 21)은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기초로 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은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보훈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규정하는 견해도 있다. 오일환(2011)에 따르면 국가보훈이란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답행위로서 이러한 보답행위를 통해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그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여 전체 구성원의 공동체 정신을 형성해 나가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보훈에 관한 개념적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국가보훈이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국가보훈의 일차적인 목적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에게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예우를 보장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하는데 있다. 하지만 국가보훈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훈문화 확산을 통해 전국민들이 국가의 존립·유지·발전에 필수적인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보훈은 나라사랑 정신과 국가정체성을 함양하는 핵심적인 기제중 하나로서 국민통합과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기능을 가진다.

한편 보훈의식은 국가보훈 개념의 내면화와 관련된 심적 현상의 총체라 할 수 있다. 보훈의식은 공동체 구성원이 보훈에 관한 현실에서 체험하는 모든 정신작용과 그 내용을 포함하는 일체의 경험 또는 현상을 말한다. 보훈의식이라는 심리적 현상은 인지-정서-실천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서운석, 2011: 195).

2.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은 심리학, 경영학, 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이론모형으로는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을 들 수 있다.

합리적 행동이론은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행동이 개인의 의지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합리적 행동이론은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

치며 태도가 정확히 측정되기만 한다면 이를 통해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합리적 행동이론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고 그들에게 가용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사용한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Fishbein & Ajzen, 1975; Ajzen & Fishbein, 1980). 합리적 행동이론은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하기 위한 설명요인으로 신념(beliefs)과 태도(attitudes)를 설정하고 이들과 행동(action)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the behavior)는 한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있어 그에 대해 취하는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행동에 대한 태도는 한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는 '나쁜 것인지', 그리고 그 행동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나타내는 판단을 의미한다. 태도는 어떤 주어진 상징물에 대하여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상태로 일관성 있게 반응하도록 하는 학습된 요인이다(Fishbein & Ajzen, 1975: 6). 태도는 행동적 신념(behavioral beliefs)과 규범적 신념(normative beliefs)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행동적 신념은 어떠한 행동이 특정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관적 개연성을 의미한다. 규범적 신념은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믿는 정도, 관련 준거집단 혹은 준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지지 혹은 반대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의 정도를 의미하는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s)을 구성하는 신념이다. 만일 다른 조건들이 동일할 경우, 행동에 대한 태도에 호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행동의도는 더 커질 것이다(박희서 외, 2007: 103).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란 개인의 예기된 혹은 미래의 행동을 뜻하는 지표로 간주되는데, 주어진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의될 수 있으며, 주어진 행동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로 측정될 수 있다. 행동의도는 실제 행동과 가장 근접한 영향요인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들을 도출하기 위해 가정된다(Ajzen, 1991).

행동(action)은 행동의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행동의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박희서 외, 2007: 104). Fishbein & Ajzen(1975)은 의도와 행동 간에는 높은 관련성을 가지며 의도에 따라 행동의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처럼 합리적 행동이론은 특정 상황에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모형인 행동예측모형(behavioral expected model)의 대표적인 이론이라 할 수 있으며, 신념과 태도,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개인의 도덕적 행동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Rest(1979)의 4구성요소 모형(4 components Model)을 들 수 있는데, 이 모형은 도덕행위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내적 과정들을 의미한다. 4가지 구성요인으로는 도덕적 민감성(제1요소), 도덕적 판단(제2요

소), 도덕적 동기화(제3요소), 도덕적 품성 및 실행력(제4요소) 등이다. 각각의 요소들은 사람들이 특별한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사하는데 사용되는 분석의 주요 단위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구성요소들은 다른 종류의 인지-정서적 상호작용들로 이루어진다.

한편 Navaez & Rest(1995)는 인지와 정서가 분리해서 일어나지 않음을 전제하고 정서가 완전히 없는 인지란 없으며 인지적 측면이 전적으로 결여된 도덕적 정서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도덕행동을 촉진시켜 주는 정서와 인지로부터 분리된 도덕행동이란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인지적 태도와 정의적 태도, 그리고 행동 간의 관계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많은 연구에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변수로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태도와 행동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며,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가 행동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선행요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태도는 자신을 포함하여 사람, 대상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평가로 정의된다(Solomon, 1999: 141). 태도는 인지적 태도와 정의적 태도로 구분될 수 있다(Berkman & Neider, 1987: 120-122). 인지적 태도(cognitive component)란 대상에 대한 지각·신념·사고로 구성되며, 특정 대상에 대해 '아는지' 또는 '모르는지' 등에 관한 태도요소이다. 정의적 태도(affective component)란 어떤 대상에 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감정의 차원이다. 예를 들어 특정 대상을 '좋아하는지'(好) 또는 '싫어하는지'(不好) 등에 관한 요소이다. Norman(1975)은 태도의 정의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 간의 일치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서 인지적 요소를 측정한 색인(index)이 감정적 요소의 측정보다 더 안정적임을 발견하였는데, 이에 근거하여 태도의 인지적 측정이 감정적 요소의 측정보다 더 유용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로 구성되는 태도는 행동의도와 행동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을 지니며, 특정 대상에 대한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보훈행동 과정에 적용해 보면, 보훈 관련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은 보훈에 관한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특정 개인이 보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만큼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행동의도와 실제 보훈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행요인이라 할 수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보훈의식 또는 보훈문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보훈의식 수준에 관한 연구와 보훈의식 영향요인에 관한 논의로 구분된다.

보훈의식 수준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로는 정헌영(2004), 박균열(2010) 등을 들 수

있다. 정헌영(2004)는 대학생들의 보훈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젊은 층의 보훈의식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보훈의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보훈의식 조사결과, 대학생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보훈유공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고, 그들에 대한 보훈시책을 강화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에 대한 자긍심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보훈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현충시설에 대한 방문경험이 거의 없거나 보훈시책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박균열(2010)은 의식-감성-실천이라는 개념적 구조를 토대로 국가보훈 인식지수, 감성지수, 실천지수 등으로 구성된 국가보훈의식지수 개발을 시도하였다. 국가보훈 인식지수는 주요 보훈인물, 사건, 상징물, 기념일 등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많이 아는지를 측정하는 반면, 국가보훈 감성지수는 주요 보훈인물, 사건, 상징물, 기념일 등을 접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등 국가보훈에 대한 감성을 측정한다. 그리고 국가보훈 실천지수는 보훈관련 행사참여 의지나 보훈대상자에 대한 자원봉사 의지 등 국가보훈을 위해 얼마나 실천할 것인지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보훈의식 영향요인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성혜란 외(2006), 서인석 외(2011), 서운석(2011) 등을 들 수 있다. 성혜란 외(2006)는 국민 보훈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에 대한 애국심 및 자긍심, 안보환경 및 그에 대한인식, 보훈과 관련된 교육, 국가의 보훈제도, 관심 및 참여도 등의 독립변수가 국민의 보훈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보훈의식에 가장 큰 효과를 미치는 변수로 관심·참여도와 애국심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의 시사점은 보훈의식에 보훈제도나 안보환경, 보훈교육과 같은 비자발적인 요소보다는 애국심이나 관심·참여도와 같은 자발적인 요소들이 보훈의식에 보다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서인석 외(2011)는 국가보훈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행동을 분석하였다.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활용하여 보훈인식과 행동을 분석한 결과, 지각된 행동통제와 개인태도가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행동의도는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운석(2011)은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한 「2009년 국민보훈의식지수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국민의 보훈의식에 대한 인과구조를 분석하였다. 보훈지식은 정책이해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정책이해는 다시 보훈감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보훈감성은 다시 보훈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변수중에서 연령, 소득, 보훈대상자 관련성 등이 직접적으로 보훈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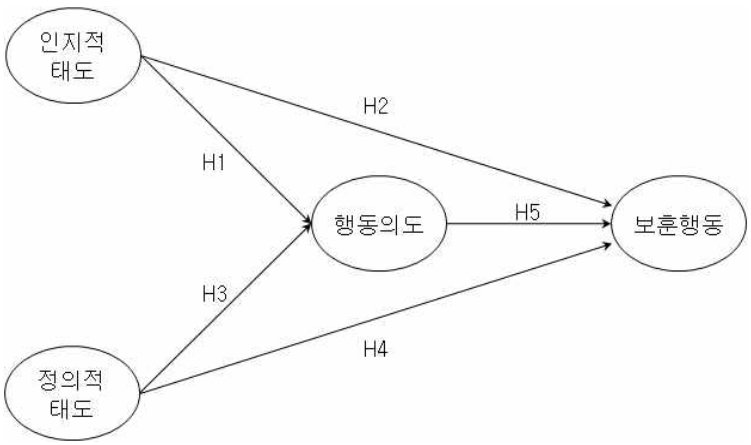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경우 공동체 구성원들의 보훈의식 수준이나 이의 영향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보훈의식 향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보훈과 관련된 구성원 개인의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의 보훈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한 체계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보훈 관련 태도와 행동의도, 그리고 실제 보훈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연구설계

1. 분석의 틀

앞에서 고찰한 보훈 및 태도-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기존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그림 1〉과 같은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보훈에 관한 태도와 행동의도, 보훈행동 등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보훈에 관한 태도는 인지적 태도와 정의적 태도로 구분된다. 인지적 태도와 정의적 태도 등의 보훈 관련 태도는 행동의도와 보훈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의도는 보훈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분석의 틀

2. 가설설정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긍정적인 태도형성은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토대로 할 때 보훈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적 태도와 정의적 태도는 행동의도는 물론

실제 보훈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보훈 관련 행동의도는 실제 보훈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토대로 보훈에 관한 인지적 태도와 정의적 태도, 보훈행동의도, 실제 보훈행동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표 1〉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표 1〉 연구가설

가 설	내 용
가설 1	보훈에 관한 인지적 태도는 보훈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보훈에 관한 인지적 태도는 실제 보훈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보훈에 관한 정의적 태도는 보훈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보훈에 관한 정의적 태도는 실제 보훈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보훈행동의도는 실제 보훈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대학생들의 보훈 관련 태도와 행동의도, 그리고 보훈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학교유형과 규모를 고려하여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실시하였으며, 총 600부를 배포하였다. 이중 총 455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는데, 이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30부를 제외한 425부(유효 회수율: 70.8%)가 실제 실증분석에 활용되었다.

회수된 원 자료(raw data)는 SPSS 11.0 프로그램을 통해 신뢰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상관관계 분석(co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측정도구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측정문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태도는 호국보훈에 관한 이해정도로 정의하고 박균열(2010) 등을 참고하여 ① 호국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 정도, ② 보훈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 정도, ③ 보훈관련 국가기념일의 의미에 대한 이해 정도, ④ 보훈관련 국가기념일의 사건발생연도에 대한 이해 정도 등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정의적 태도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단체들에 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 정헌영(2004), 박균열(2010) 등을 참고하여 ① 국가를 위해 공헌 또는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정도, ② 보훈대상자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하는

정도, ③ 국가유공자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정도, ④ 각종 보훈단체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정도 등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행동의도는 향후 호국보훈 관련 행사에 참여할 의도로 정의하고, 정헌영(2004) 등을 참고하여 ① 국가위기(전쟁 등)시 위기극복을 위해 동참할 의향, ② 국가의 경제적 위기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참할 의향, ③ 국난 위기시 다른 나라로 이민갈 의향(R) 등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보훈행동은 호국보훈 관련 시설이나 행사에의 실제 참여정도로 정의하고, 정헌영(2004), 박균열(2010) 등을 참고하여 ① 호국보훈시설(독립기념관 등)을 자주 방문하는 정도 ② 보훈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 ③ 인터넷을 통해 보훈기관 및 시설을 검색해 본 정도 등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조사에 활용된 각각의 측정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매우 부정①↔매우 긍정⑤)를 이용하였다.

Ⅳ. 실증분석

1. 표본의 특성

〈표 2〉는 표본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학생들의 성별분포는 남학생이 13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2.5%로 여학생 284명(67.5%)보다 적었다. 학교별 표본의 분포를 살펴보면 4년제 대학 재학생이 56.3%(237명), 전문대 재학생이 43.3%(184명)로 나타나 4년제 대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세~23세 응답자가 전체 77.3%(324명), 24세~27세가 19.8%(83명), 28세~30세가 1.7%(7명) 등이었다.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표본수(%)	구 분		표본수(%)
성별	남	137명(32.5%)	연령	20세 이상-23세 이하	324명(77.3%)
	여	284명(67.5%)		24세 이상-27세 이하	83명(19.8%)
학교 유형	전문대	184명(43.3%)		28세 이상-30세 이하	7명(1.7%)
	4년제	237명(56.3%)		30대 이상	5명(1.2%)

2.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측정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각 변수별 신뢰도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뢰도 분석결과인 크론바흐(Cronbach) α값이 0.6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보훈에 대한 인지적 태도와 정의적 태도, 보훈행동의도, 보훈행동 등 모든 변수의 α값은 0.7이상으로 측정도구의 신뢰성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3〉 신뢰도 분석결과

구성개념	항목수	Cronbach's α
보훈에 대한 인지적 태도	4	0.799
보훈에 대한 정의적 태도	4	0.825
보훈행동 의도	3	0.736
보훈행동	3	0.790

한편 본 연구의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타당도 검사를 시행하였다. 요인을 결정하기 위해 관측된 요인의 선형결합인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베리맥스(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유치(eigenvalue)가 1이상인 요인과 총분산의 60%이상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출하였다. 〈표 4〉는 타당도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타당도 분석결과,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즉, 보훈에 대한 인지적 태도, 정의적 태도, 행동의도, 보훈행동 등에 대한 각각의 측정문항들은 모두 조작적 정의에 따라 각각의 변수를 잘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4〉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정의적 태도	인지적 태도	보훈행동	보훈행동의도
인지태도1	.077	.815	-.023	.172
인지태도2	-.037	.853	.044	.162
인지태도3	.079	.785	.110	-.002
인지태도4	-.059	.669	.287	-.088
정의태도1	.710	.030	-.063	.220
정의태도2	.829	.052	-.145	.048
정의태도3	.836	.020	-.036	.179

정의태도4	.800	-.035	.036	.051
행동의도1	.232	.129	.082	.828
행동의도2	.338	.100	.061	.670
행동의도3	-.012	.008	-.010	.744
보훈행동1	-.094	.083	.817	-.003
보훈행동2	-.141	.112	.856	.031
보훈행동3	.065	.121	.812	.087
고 유 값	3.381	2.960	1.695	1.274
분산비율	24.150	21.142	12.107	9.099
누적분산비율	24.1450	45.292	57.399	66.499

3. 회귀분석 결과

가설검증에 앞서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표 5〉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보훈에 대한 인지적 태도와 정의적 태도 간의 관계를 제외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의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정의적 태도와 양(+)의 상관관계(r=0.366, p〈0.01)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태도와의 상관관계(r=0.196, p〈0.01)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행동의 경우에는 정의적 태도(r=0.111, p〈0.01)보다 인지적 태도(r=0.253, p〈0.01)와 더 높은 양(+)의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인지적 태도	정의적 태도	행동의도	보훈행동
인지적 태도	2.48	.772	1.00			
정의적 태도	3.56	.788	.048	1.00		
행동의도	3.12	.814	.196***	.366***	1.00	
보훈행동	2.00	.865	.253***	.111***	.089*	1.00

*p〈.10, **p〈.05, ***p〈.01

분석모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보훈에 대한 인지적 태도, 정의적 태도, 행동의도, 그리고 보훈행동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보훈에 대한 인지적 태도와 정의적 태도가 보훈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R2는 .163으로 나타나 보훈에 대한 인지적 태도와 정의적 태도에 의해 설명되는 보훈행동의도의 변량은 16.3%로 나타났다. F값은 40.701로 나타났으며, 이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에 대한 인지적 태도와 정의적 태도 모두 p〈.01 수준에서 보훈행동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행동의도에 대한 인지적 태도와 정의적 태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β값을 중심으로 살펴 볼 때, 정의적 태도(β=.358)가 인지적 태도(β=.171)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보훈에 대한 인지적 태도보다는 정의적 태도가 보훈행동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의미한다.

〈표 6〉 보훈에 관한 인지적 태도와 정의적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Sig.
	B	*Std.Error*	*β*		
상수	1.359	.201		6.746	.000
인지적 태도	.180	.047	.171***	3.804	.000
정의적 태도	.371	.046	.358***	7.989	.000
$R^2(Adj.R^2)$	R^2=.163 $Adj.R^2$=.159				
F	40.701***				

*p〈.10, **p〈.05, ***p〈.01

보훈에 대한 인지적 태도와 정의적 태도가 실제 보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회귀모형의 R2는 .079로 나타나 보훈에 대한 인지적 태도와 정의적 태도에 의해 설명되는 보훈행동의 변량은 7.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F값은 17.78로 나타났으며, 이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에 대한 인지적 태도와 정의적 태도는 각각 p〈.01, p〈.05수준에서 실제 보훈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행동에 대한 인지적 태도와 정의적 태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β값을 중심으로 살펴 볼 때, 인지적 태도(β=.258)가 정의적 태도(β=.123)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실제 보훈행동에는 정의적 태도보다는 인지적 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의미한다.

〈표 7〉 보훈에 관한 인지적 태도와 정의적 태도가 보훈행동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Sig.
	B	*Std.Error*	β		
상수	1.762	.225		7.821	.000
인지적 태도	.290	.053	.258***	5.475	.000
정의적 태도	.135	.052	.123**	2.605	.010
$R^2(Adj.R^2)$	R^2=.079 $Adj.R^2$=.074				
F	17.780***				

*p〈.10, **p〈.05, ***p〈.01

한편 보훈행동의도가 실제 보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단순회귀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회귀모형의 R2는 .008, F값은 3.326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행동의도는 p〈.10수준에서 실제 보훈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행동에 대한 보훈행동의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의미하는 β값은 .089로 나타났으며, 이는 p〈.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행동의도가 보훈행동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Sig.
	B	*Std.Error*	β		
상 수	1.704	.166		10.235	.000
행동의도	.094	.052	.089	1.824	.069
$R^2(Adj.R^2)$	R^2=.008 $Adj.R^2$=.006				
F	3.326*				

*p〈.10, **p〈.05, ***p〈.01

V. 함의 및 결론

국가보훈이란 국가의 기능차원에서 국가와 민족, 사회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된 분들에 대한 보답과 예우를 통해 국가의 정체성 확립, 국민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 안보역량의 강화, 국가사회발전 등을 위한 정신적·물질적 토대를 구축하는 기반이다(유영옥, 2009: 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보훈 관련 태도와 행동의도, 그리고 보훈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훈에 관한 인지적 태도는 보훈행동의도와 보훈행동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지적 태도가 보훈행동의도와 보훈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과 〈가설2〉는 모두 채택되었다. 이는 보훈 관련 정보와 지식, 그리고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수록 보훈행동의도와 보훈행동은 모두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보훈에 관한 정의적 태도는 보훈행동의도와 보훈행동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의적 태도가 보훈행동의도와 보훈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과 〈가설4〉는 모두 채택되었다. 이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해 호의적이고 보훈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보훈행동의도와 보훈행동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보훈행동의도는 보훈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보훈행동의도가 보훈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5〉는 채택되었다. 이는 행동의도가 실제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로 보훈관련 행동의도가 강할수록 실제 보훈행동도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가설검증 결과가 가지는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도-행동이론이 대학생들의 보훈행동을 설명·예측하는 데에도 유효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태도-행동의도-행동 간의 관계가 보훈행동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합리적 행위이론을 비롯한 기존 관련 이론에서 제시된 인과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보훈행동의도와 실제 보훈행동에 대한 보훈 관련 태도의 상대적 영향력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훈행동의도에는 정의적 태도(β=.358)가 인지적 태도(β=.171)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보훈행동에 대해서는 인지적 태도(β=.258)가 정의적 태도(β=.123)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에 대한 태도의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행동의도를 향상시키는 데에는 정의적 태도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요인이지만 실제 행동을 유인하는 데에는 인지적 태도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보훈행동의 실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보훈행동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보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훈의식은 나라사랑교육에 크게 좌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학교에서는 보훈과 관련된 강좌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교에서 교양강좌 등을 통해 나라사랑이나 보훈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보훈 관련 강좌개설 및 운영을 통해 나라사랑정신과 보훈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보훈에 대한 인지적 태도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 교육에서 나라사랑 및 보훈에 관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교수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오일환(2011)이 지적한 것처럼 대학생들이 감각을 중시하는 영상세대라는 점을 고려해 시청각 교육 자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들이 보훈에 대해 얼마나 아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훈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보훈 관련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트위트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달의 독립운동가'나 '이달의 6·25 전쟁영웅' 등과 같은 '이달의 보훈인물'을 홍보함으로써 보훈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보훈에 대한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현장 체험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미디어나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은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나 관련 강좌를 통해 국가보훈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태도-행동이론을 토대로 보훈에 관한 인지적 태도와 정의적 태도가 보훈행동의도와 보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연구대상을 수도권지역 대학생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구대상들을 포함시켜 인국통계학적 특성이나 계층에 따른 논의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석승·김현기(2003), 우리나라 국가보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연구,「한국보훈논총」, 1: .

국가보훈처(2002),『국가와 보훈』. 국가보훈처.

박균열(2010), 국가보훈의식지수개발 기초연구,「윤리교육연구」, 23: 305-330.

박희서·노시평·김은희(2007), 환경친화적 행동의 영향요인 분석: 합리적 행동이론(TAR)의 관점에서.「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2): 97-119.

서운석(2011), 한국민의 보훈의식에 대한 인과구조 분석,「사회과학연구」, 35(1): 183-211.

서인석·임다희·권기헌(2011), 국가보훈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합리적 행동이론(TRA)과 계획된 행동이론(TPB)을 중심으로,「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2): 141-170

성혜란·양진명·한봉수(2006), 국민 보훈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보훈학술논문집

」, 161-188.
오일환(2011), 국가보훈과 국가정체성, 「민족사상」, 5(1): 47-79
유영옥(2009), 국가보훈과 국민통합, 「한국보훈논총」, 8(1): 10-11.
전신욱·신윤창(2003), 한국 보훈문화의 정립실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2): 79-104
정경환(2011), 국가보훈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연구, 「민족사상」, 5(1): 9-46.
정헌영(2004), 대학생들의 호국보훈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보훈논총」, 3(1): 111-131.
형시영 외(2010),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보훈교육연구원.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Berkman, H. W. & L. L. Neider (1987), *The Human Relation of Organization*, Boston: Kent Publishing Co.
Fishbein, M. & I. Ajzen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Addision-Wesley, Reading, MA.
Navaez, D. & J. Rest(1995), The Four Component of Acting Morally, In W. M. Kurtines & J. L. Gewirtz, eds., *Moral Development: An Introduction*, Allyn & Bacon, 1995,
Norman, R.(1975), Affective-cognitive Consistency, Attitudes, Conformity,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83-91.
Rest, J. R.(1979), *Development in Judging Moral Issu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접수일(2012년 04월 19일)
수정일자(2012년 05월 24일)
게재확정일(2012년 06월 13일)